

애완용 햄스터에 의한 교상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1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정태녕 · 윤유상 · 박준석 · 박인철 · 조광현 · 김승호

Anaphylaxis after Pet Hamster Bite

Tae Nyoung Chung, M.D., Yoo Sang Yoon, M.D., Jun Seok Park, M.D., In Cheol Park, M.D., Kwang Hyun Cho, M.D., Seung Ho Kim, M.D.

Anaphylaxis after an animal bite is uncommon. Especially, anaphylaxis after a hamster bite is very rare with only a few reported cases. A 19-year-old previously healthy female arrived complaining of respiratory difficulty, facial swelling and skin rash after her pet hamster bite. Her symptoms started 5 minutes after the bite and arrived 30 minutes after the incidence. Epinephrine, antihistamine and steroid were injected and her symptoms were relieved. She was discharged 3 hours after treatment with no other complications.

Key Words: Anaphylaxis, Hamster, Bites and stings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 론

아나필락시스는 응급 의료 영역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질환으로 다양한 증상과 중증도를 갖는다. 중증의 경우에는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¹⁾. 동물 교상 (bites)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개 뱀이나 독거미와 같은 독 (venom)이 있는 동물에 물렸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단순히 동물에게 물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특히 애완용으로 길러지는 햄스터에 의한 교상으로 유발된 아나필락시스가 보

고된 증례는 지금까지 수 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⁵⁾. 애완용으로 길러진 햄스터 교상 후 발생한 호흡곤란과 안면 부종 그리고 전신의 피부 발적을 호소하며 왔던 아나필락시스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9세 여자가 내원 30분전 집에서 기르던 햄스터에게 우측 엄지를 물리고 5분 후부터 발생한 호흡곤란, 안면 부종, 전신의 피부 발적 및 어지럼증으로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였고 특이 질환이나 알레르기의 기왕력 및 가족력에서의 특이 병력은 없었다.

초기 생체징후는 체온 36.4°C, 혈압 120/70 mmHg, 맥박 82회/분, 호흡수 30회/분이었다. 신체검사에서 중증도의 안면 부종 및 연구개의 부종이 관찰되었다. 청진상 양측폐 전역에서 썩썩거림이 들렸으며 우측 엄지에 물린 자국이 관찰되었다 (Fig.1). 산소포화도 모니터에서 SpO₂ 98%였고, 이때 시행한 혈액 검사 소견은 백혈구 14,130/mm³, 혈색소 12.5 g/dL, 헤마토크리트 37.8%, 혈소판 237,000/mm³이었으며 생화학 검사상 Na⁺ 136.2 mmol/L, K⁺ 3.86 mmol/L, Cl⁻ 105.3 mmol/L, BUN/Cr 14.9/0.6 mg/dL, AST/ALT 19/12 IU/L 이었다. 단순 흉부 촬영에서 이상은 없었다.

아나필락시스의 치료로 우선 epinephrine 0.5 mg 근육주 후 chlorpheniramine 4 mg 및 methylprednisolone 125 mg 정주하였다. 산소 및 수액투여 등 보존적 치료와 심전도 감시를 시행하였으며 내원 3시간 후 증상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고 찰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하는 급성 알레르기 환자 중 많은 수가 아나필락시스 상태로 온다⁶⁾. 아나필락시스의 증상과 징후는 넓게 퍼진 홍반이나 소양감, 두드러기와 같은 경증에서부터 맥관부종, 기관연축, 후두부종, 연동운동 항진, 저혈압, 부정맥 등과 같은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증의 아나필락시스인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심각한 장애나 사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응급진료센터에 오는 아나필락시스

책임저자 : 김 승 호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Tel : 02) 361-5793 Fax : 02) 392 3715

E-mail : edksh@yumc.yonsei.ac.kr

접수일 : 2003년 9월 21일, 게재승인일 : 2004년 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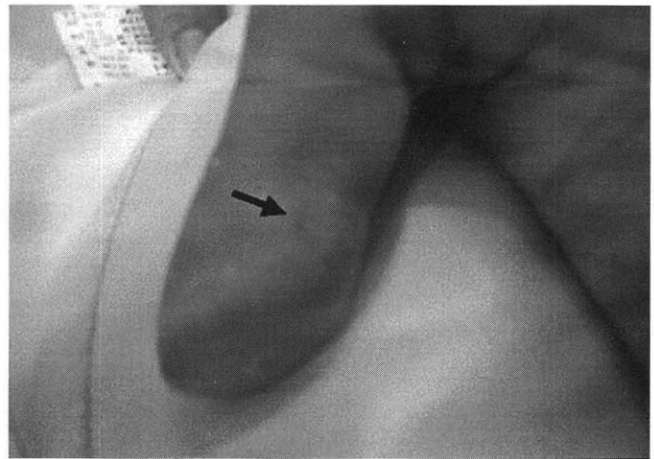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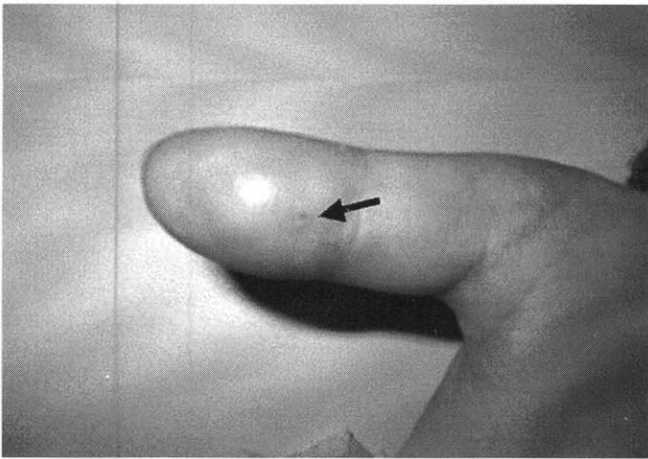


Fig.1. Hamster bite wound of Right thumb

스 환자의 가장 흔한 발현 형태는 맥관 부종 및 전신적인 두드러기이며 이는 중증 아나필락시스의 전구 증상이기도 하다¹⁾.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 음식물, 약물, 독, 효소, 운동, 수혈 등 다양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Brown 등⁶⁾의 연구에 따르면 응급진료센터로 내원하는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원인 물질로는 약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곤충, 음식물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아나필락시스의 기전은 이전에는 저자에 따라서 Coombs와 Gell의 면역병리기전 분류중 면역글로불린 E에 의한 것에만 국한하고 이외의 경우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나필락시스를 단순히 면역글로불린 E에 의한 것 외에도 세포독성, 면역복합체, 지연성 반응 등 모든 면역병리기전을 포괄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군으로 보고있다¹⁾.

동물에 물린 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고된 예가 매우 드물지만 특기할만한 점은 대부분이 설치류에 의한 교상으로 유발된다는 점이다^{2,5)}. 본 증례와 같이 애완용으로 키워지는 설치류 교상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험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설치류 동물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³⁾. Hesford 등³⁾이 실험용 쥐 교상에 의해 유발된 아나필락시스 증례에 대해 보고하고 이것이 연구자나 실험동물 취급자에게 직업적 위험 (occupational hazard)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응급실로 오는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대부분은 호흡곤란과 같은 중증 증상이 없고 쉽게 치료에 반응하여 상태가 호전된다⁶⁾. 그러나 간혹 중증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경우 치명

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유발 원인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간 보고된 설치류 동물 교상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증례들에서 알레르기의 기왕력이나 이전에 같은 동물에 물린 과거력과 같은 환자들 간 병력상의 공통점을 찾긴 어려웠고 현재 확실한 위험군을 선별한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대량으로 설치류 동물을 취급하거나 사육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더 많은 증례 분석을 통한 위험군의 선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Kemp SF, Lockey RF. Anaphylaxis: A review of causes and mechanisms. *J Allergy Clin Immunol* 2002;110:341-8.
2. Teasdale EL, Davies GE, Slovak A. Anaphylaxis after bites by rodents. *Br Med J (Clin Res Edn)* 1983;286:1480.
3. Hesford JD, Platts-Mills TA, Edlich RF. Anaphylaxis after laboratory rat bite: An occupational hazard. *J Emerg Med* 1995;13:765-8.
4. Thewes M, Rakoski J, Ring J. Anaphylactic reaction after a mouse bite in a 9-year-old girl. *Br J Dermatol* 1999;141:179.
5. Tomitaka A, Suzuki K, Akamatsu H, Matsunaga K. Anaphylaxis after hamster bites: a rare case? *Contact Dermatitis* 2002;46:113.
6. Brown AF, McKinnon D, Chu K. Emergency department anaphylaxis: A review of 142 patients in a single year. *J Allergy Clin Immunol* 2001;108:861-6.